

제19장 후기생애와 닫는 글

1. 후기생애

동석기 전도자는 1956년 4월 최수열 선교사, 박선흠 전도자의 협조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육 기관인 신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신학원은 내수동교회 예배당에서 개교했기에 내수동야간신학원(內需洞夜間神學院)이라고 불렸다. 설립 당시 교수진으로는 최수열 선교사, 이흥식 전도자, 동충모 전도자, 그리고 박선흠 전도자 등이 수고하였다. 신학원 설립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로는 ‘김재환[전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 이용, 조희순, 공삼열[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전도자], 그리고 김세복[『한국 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 저자] 등을 들 수 있다. [김세복, 『교회사』, 60.] 야간 신학원의 당시 학생들이 수강했던 교과목(敎科目)은 대표적으로 성서 개론, 사도행전, 신약성서 과목, 성서 원어(히브리어와 헬라어), 교회사, 그리고 영어 등을 들 수 있다. 이 교과목 중에서 교회사 과목은 최수열 선교사가 강의했다. [기준서, 『역사적 진실』, 4. 내수동야간신학원을 성경연구반이라고 함]

내수동야간신학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7년에

강명석 선교사가 설립하여 운영했던 ‘training classroom[preacher school,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육 기관의 효시]’ 이후 최초 신학교육 기관이다. 그리고 KC 대학교 초기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내수동야간신학원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기사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잡지로 알려진 『바른길(1956.7.7.)』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야간 신학원은 오는 7월 16일부터 여름방학을 한다더라.”

동석기 전도자는 75세(만 74세) 때인 1955년 9월경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75번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74]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는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선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선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위치는 어떠한지? 에 대하여 무척 궁금하다. 그뿐만 아니라 내수동교회에서의 그의 역할과 사역에 관하여도 궁금하지만, 알려진 기록을 찾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반면에 알려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닌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동석기 전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면 외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며 돕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대책을 의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당사자들을 찾아가 필요 적절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동석기의 동정심에 대하여 『동아일보』(1955.9.1; 1955.9.4.)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8월 31일 보도한바 외아들을 제대시켜달라고 당국에 호소해온 앞 못 보는 60 노인 안중약 씨의 애달픈 처지를 동정하여 ‘될 수 있으면 그 노인의 침식 일체를 제공하고 아들의 제대 수속 절차까지 밟아주겠다’라는 독지가(篤志家)가 나타나 8월 31일 본사를 방문 그 사연을 전하여 왔다.”

“이 독지가는 시내 서대문구 아현동 1-375에 거주하는 75세의 동석기 씨 / 동 씨는 불우한 노인 안중약 씨를 위해서 그의 생활 일체를 부담하고 그가 원하는 아들의 제대 수속을 밟아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대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안 노인이 자기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외아들의 제대를 호소하는 앞 못 보는 60 노인 ‘안중악’ 씨의 이야기가 전하여지자... 육군본부에서도 방금 그의 아들 ‘안교송’ 군의 제대 조치를 연구 중이고... ‘안’ 노인의 신변을 돌보아 주겠다고 나선 75세의 독지가 동석기 노인(북아현동 1-375)은 1955년 9월 2일(금)에는 육군본부 인사처장을 찾아 ‘안’ 군의 제대 문제를 상담하였다고... 때마침 이 땅에도 솟아나는 인정의 샘 / 하루속히 제대되는 안 군의 얼굴을 보고 싶다...”

동석기 전도자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 받은 최초 선교사로서 사역하였으나 이제는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담당하므로 생각에 잠긴다. 이때 그는 한국의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선교 현장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76세(만 75세) 때인 1956년에 도미하였는데, 이때부터 미국과 한국을 왕래(往來)하면서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 전도자들의 측면을 지원하였다.

동석기 전도자의 측면 지원 사역은, 미국에서 늙은

몸(노구)을 이끌고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찾아가 선교비를 모금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일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의 생활과 사역을 돕는 일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회 개척에 사용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 아쉽다. 아무튼, 이때부터 그는 선교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직접 사역보다는 측면 지원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맡기고 미국에서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미국 교회들을 순회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는 사역에 분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러던 그가 85세(만84세) 때인 1965년 이홍식 전도자를 비롯한 한국 전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후 재혼(再婚)하므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의 재혼 소식이 『경향신문』(1965.11.30.)에 기사화되는 등 당시 한국 사회에 쟁점(issue)이 되었다.

“팔순의 할아버지와 50대 여인이 화촉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8월 29일 상오 미 대사관 특별실에서 결혼한 85세(만 84)의 이 할아버지 신랑은 동석기(董錫琪)군, 신부 박용애(朴容愛, 53) 양을 아내로 맞이한 신랑,

동 옹은 이날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고 신부의 팔짱을 끼고 서울 종로구 행촌동 166에 마련한 새 살림집으로 떠나면서 20대의 젊은이가 부럽지 않다고 기염,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인 동 옹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봄 미국 네브래스카(Nebraska)에 있는 73세의 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온 후라고.”

재혼 후 도미한 동석기 전도자는 1966년 86세(만 85세)에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였다. 은퇴 후에는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조그만 그리스도의 교회 양로원에서 조용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KC대학교, 그리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내다 91세(만 90세) 때인 1971년 12월 26일(주일) 꿈 많던 생을 마감하고 별세하였다. 그런데 별세 25년 후인 1996년 대한민국 김영삼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대통령 표창(表彰)을 포상(布商)하였다. [『매일경제』(1996.8.14.)]

2. 닫는 글

동석기 전도자는 성격이 단순하고 진실하였으며, 신앙적인 면과 진리 앞에서는 항상 솔직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개혁주의(改革主義, reformism)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즉 ‘가다가도 가던 길이 성서의 가르침이 아님을 확신하면 돌아섰으며, 확실한 성서적 가르침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실천하였던’ 대쪽같은 지도자였다. 따라서 확신하고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는 조금도 타협(妥協)할 줄 몰랐으며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지도 않았다. 이러한 성품의 동석기 전도자는 당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등을 향하여 열변을 토하였다.

“성서로 돌아가자(성서 권위 회복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원형의 교회 회복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치하자(교회 일치 운동), 약식세례와 유아세례는 성서가 말하는 세례가 아니므로 침례를 행하자, 매 주일 주의만찬 중심예배를 드리자, 교파형 교회의 상회(上會) 같은 조직을 배제하고 개 교회(자유교회)를 중요시하자”

그런데, 동석기 전도자는 그가 설립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제대로 기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교제90주년을 2년 앞두고 필자가 『90년의 발자취- 동석기 편』을 집필하면서 동석기 전도자의 다음과 같은 주

장을 음미해 보았다.

“Church of Christ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교파형 교회가 비성서적인 요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서와 원형의 교회로 환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와 원형의 교회로 환원하는 길만이 오염되고 정체된 늪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설문조사(survey)의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주변에 품위나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다 86.7%, 없다 13%’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심각성은 비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약 87% 이상인 반면에 자질을 갖춘 목회자는 13%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목회자 10명 중 9명은 무자격 목회자이고 1명만 참 목회자라는 평가인 것이다.

위 설문조사의 결과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는 삶’과 ‘신자답게 사는 교인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목회 방식’에 대한 혹독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교회에 관한 평가는 목회자에게 100% 책임을 묻고 있으나, 교인들에게는 책

임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수많은 교회와 무자격 목회자보다 소수일지라도 ‘바른 교회와 참 목회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동석기 전도자와 같은 확고한 신념과 실력, 그리고 열정을 가진 목회자와 환원 운동가들이 시급히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기에 미국의 홀랜드(Tom Holland)라는 환원 운동가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초대교회로의 회복 운동인 환원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는 원형의 교회 회복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홀랜드가 자신 있게 환원 운동의 참여를 촉구할 정도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치가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환원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불화를 피하고자 기득권을 포기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스톤(Barton Warren Stone)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왜냐하면, 교역자 협의회는 협의회 그룹(A그룹)과 비대위 그룹(B그룹)으로 2018년 4월 23일(월) 세 번째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반목질시(反目嫉視)하며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역자 협의회는 먼저 1983년 3월 14일(월) 유·무악기 통합 그룹[회장 임낙풍, 총무 조완길]과 잔류 그룹인 교역자 협의회[회장 공삼열, 총무 전계선]로 첫 번째로 분열되었다. 다음은 1984년 11월 말부터 유·무악기 통합 그룹에서 일부가 교역자 협의회로 복귀하였다. 이어 1986년 12월 12일(금) 교역자 협의회 그룹에서 이탈한 일부와 유·무악기 통합 그룹이 총회[총회장 박현섭, 총무 서바울(서재룡)]를 조직하므로 두 번째로 분열되었다. 그러다 1996년 4월 8일(월) 분열 13년 만에 교역자 협의회 그룹[회장 고성주, 총무 조영호]과 총회 그룹[총회장 백유섭, 총무 김정영]이 통합하므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통합 22년 만에 다시 분열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둘째, 공개토론의 활성화 때문이다. 피그먼(Arthur Pigman)은 완전한 환원 운동은 대토론회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을 가장 훌륭한 토론가(討論家) 중 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토론 회가 있었던 교역자 세미나와 수련회 같은 행사 등이 실종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정리한 후 의견이 다른 목회자들을 형제로도 여기지 않고 교제마저 단절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셋째, 대학의 역할 때문이다. 환원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을 세워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베이컨대학, 베다니대학, 프랭크린대학, 유래카대학 등이 세워졌으며,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은 훌륭한 교수였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대학인 KC대학교(강서대학교 개명 결의)는 설립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29(금)일 두 번째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송하는 슬픈 역사를 또 기록하였다. 첫 번째 임시이사 파송은 36년 전인 1982년 5월 27일(수)이었다. 당시 6년 동안 교계와 대학은 양분된 상태에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입기도 했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시이사 파송의 결과를 만들어 낸 원인 제공자들이 있는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 KC대학교는 설립 정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전교생을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

한 커리큘럼 개편, 인적 쇄신 및 미래의 비전 제시 등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넷째, 정기간행물 즉 토마스 캠벨의 「*The Christian Baptist*」와 「*The Millennial Harbinger*」, 스톤의 「*The Christian Messenger*」 등의 출간 때문이다. 인쇄된 말 속에는 상당한 위력과 기회가 잠재되어 있어서 잡지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정기간행물은, 격월간(隔月刊) 『참빛』[발행인 기준서 박사]과 『그리스도의 교회』[발행인 과수리 선교사]가 있다. 그러나 이 잡지들이 캠벨과 스톤의 잡지 같은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하여 환원 운동을 확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들만이 독자인 형편이다.

끝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와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면 동석기 전도자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며 환원 운동의 확산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른 교회와 참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